청소년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발제: 김 도 영
사회복지학(청소년전공) 박사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소장

I. 서론

청소년 헌장에는 다음과 같은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청소년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입시로 인한 시간부족,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및 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활동은 예술성이나 창의성과 같은 잠재적 소질이나 역량의 개발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정서에 대한 순기능적 영향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사회화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을 조성하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정득, 김은수, 이종석, 2016; Aktinson & Robson, 2012).

이러한 문화예술활동의 긍정적 기능으로 인해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교육 및 활동현장에서 창의성, 인성 그리고 감성개발에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학교에서는 음악, 미술교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 들어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

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과 자유학기제,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해 확장된 장르의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민경훈, 2013).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해 난타, 우쿨렐레, 밴드동아리, 벽화동아리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은 방과후 활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정도로만 여겨져 왔으며, 그나마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단순 체험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프로그램 또한 중장기적인 다회귀성보다 단회기성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의 창의성 개발, 자아정체성 확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익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논의의 출발점은 청소년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의 성장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에게 문화예술활동이 왜 중요하고,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Ⅱ. 본론

1.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의 개념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영식, 문성호와 정경은(2008)의 실시한 연구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 그 자료를 인용해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문화 또는 예술이라는 용어는 개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반해, 이를 합성한 문화예술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로 정책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활동의 개념이 함의하는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하여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는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2호에 의하면, 청소년활동 중 “청소년 문화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관련법령에 따르면 문화활동은 예술활동과 더불어 스포츠, 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령에 따른 문화예술활동에는 문학, 공연예술, 조형예술, 문화유산, 전통문화, 생활문화, 문화미디어, 영화·애니메이션·음악·비디오물·게임물·멀티미디어콘텐츠·캐릭터·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을 정의하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으로 주로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문학, 공연예술, 조형예술, 문화유산, 전통문화, 생활문화, 문화미디어, 영화·애니메이션·음악·비디오물·게임물·멀티미디어콘텐츠·캐릭터·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에서 행해지는 체험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2.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의 효과

위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의 개념에 의하면,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으로 주로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문헌의 공통된 관점도 문화와 예술이 개인의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화되어가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서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문화와 예술을 통한 다양한 경험은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타 집단 및 계층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소통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효과를 발휘한다(김인설, 정득, 이종석, 2014; Aktinson & Robson, 20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로, 삶의 질의 제고 효과(문화예술관련 학습활동 자체의 즐거움), 문화예술관련 학습효과(문화예술 기초 창작능력, 이해력, 관심도, 향유능력, 창의성, 감수성), 사회생활 관련 효과(학습자의 문화예술 관련 사회활동 정도), 학습능력 제고효과(언어, 수리, 기타 학습능력, 전반적인 학습능력), 일반능력 제고효과(창의성, 자기표현력/의사전달력, 협동심/공동체의식, 자기존재감/자기정체감, 정서적 안정, 책임감, 인내심, 일반능력 제고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등을 언급하고 있다(김용주, 임영제, 최영출, 박길성, 2010; 정경은, 2011).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England)에서는 2001년 대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효과의 입증을 시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밝혀진 효과로는 자존감, 미래조망, 기쁨 등 개인적 요인을 비롯하여 타인이해 및 관용증진,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향상, 지역사회 정체성 및 자부심 고취, 적극적인 지역사회와 지역의 민주주의 확대 등 집단 및 지역사회 요인에까지 그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인설, 정득, 이종석, 2014; Jermyn, 200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2011)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각종 문제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들의 행동 교정 및 정서적 안정과 같은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욕설문화와 학교폭력 등의

대책으로 유용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문화예술활동이 일종의 주된 놀이문화가 되었으며 대화를 할 때에도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대화를 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영식과 정경은(2014)은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연구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한 결과, 참여집단은 비참여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감소와 자기조절력 향상이 유의적으로 높았다고 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증명하였다. 이렇듯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다양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이 확인 되어야 정책적으로 청소년문화예술활동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을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맹영임, 김민과 임경희(2005)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인식, 선호도, 향유수준 및 활동을 토대로 문화예술활동이 미치는 요인과 기능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문화예술의 대표적 2가지 기능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관용과 관계의 확대라고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스트레스 해소, 여가선용, 정보와 지식 획득, 생활의 즐거움과 재미, 정서적 안정감, 자신감 획득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렇듯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적으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3가지로 구분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의 꿈을 발견하고 진로를 개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꿈을 찾고 미래를 개척하도록 지원하며,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황혜정, 김이경, 2015). 정익중, 김서현과 엄혜림(2015)은 연구를 통해 아동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만의 꿈을 찾은 이후

그것의 실현을 믿으며 긍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의 집중적인 진로교육을 받게 되면서 이전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그리게 되었고, 문화예술 진로교육은 아동들에게 개인적 차원의 진로개발과정에서는 알 수 없었던 더 넓은 직업세계와 만나는 기회였으며, 잠재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찾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능동적으로 도약하도록 활력을 부여하는 지지체계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정경은과 조영미(2012)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 참여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청소년들이 활력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꿈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활동은 꿈을 찾는 즉 진로탐색의 통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은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이 긍정적인 변화에 도움을 준다.

문화예술교육은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참여자들끼리 경청과 소통의 장이 되었고, 청소년들의 공감능력을 끌어냈고, 참여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의 체험이 청소년들의 정서적 행복감, 자신감, 학교 및 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과 자존감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고 하였다(정경은, 조영미, 2012). 곽윤정(2010)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성향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문화예술적 요소가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미경과 윤동열(2013)도 문화예술학습활동에 참여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면서 문화예술학습활동이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렇듯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은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의 긍정적 변화에 중요한 기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은 청소년문제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의 제반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인성계발과 소외청소년이나 청소년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의 정서문제는 공격성, 우울감, 사회적 위축 등 행동증세로 표출되는데 문화예술활동은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약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다. 이는 사춘기의 비행 및 일탈행동이 부적응의 척도가 된다는 측면에서 문화예술활동은 부정적 정서의 완화 혹은 적응력 향상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인설, 정득, 이종석, 2013).

Jermyn(2004)에 의하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약물남용, 비행, 십대임신 등의 문제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Bailey와 Davidson(2007)도 문화예술활동의 효과로 문제행동 감소를 주장하였다. 또한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치유적 접근으로 문제성향이 있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효과성(사회성, 자기조절력, 문화예술선호성 향상, 스트레스 감소)이 있다고 하였다(임영식, 유제민, 정경은, 김윤나, 양돈규, 2011). 이렇듯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감소 및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3.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례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들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예술꽃 새싹학교 지원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고3·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그 외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오늘은 예술학교 운영사업과 드림스쿨 운영사업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들 대부분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복지기관문화예술 지원사업이라고 하여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긴 하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들 수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부처간 협력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상상학교' 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상상학교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고 문화감수성 및 자기이해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문 문화예술교육단체를 선정하고 운영기관인 청소년수련시설과 매칭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공모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상상학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대체로+매우)는 응답이 93.3%로 나타났다. 참여효과로는 새로운 도전이었다(61.1%), 자신감을 찾았다(52.7%), 배려심, 협동심이 생겼다(23.4%), 내가 몰랐던 나의 숨은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였다(21.8%), 향후 진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다(16.7%), 문화감수성이 높아졌다(1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문화감수성 향상 등 매우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전국 공모형태를 띄고 있어 제주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많은 제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의회, 청소년문화예술단체가 서로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다면 더 많은 제주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의 긍정적인 면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앞서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청소년기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기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는 즉 자아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문화와 예술은 개인이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화되는 과정에 중요한 정서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건강

한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렇게 청소년에게 문화예술활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입시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청소년이 참여가 쉽지 않다. 더불어 예산 지원의 한계로 단편적으로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이 운영 되고 있어 효과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청소년의 욕구 및 참여현실과 문화예술활동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이 질적, 양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요구와 참여 현실에 맞춘 다채로운 내용의 구성과 다양한 방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청소년수련시설, 지역문화예술단체(기관) 등이 협조와 호응이 필수적이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의 정책적으로 체계화되고 확장되어 제주지역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이 질적, 양적으로 활성화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곽윤정(201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동복지설 아동의 우울성향, 자아상,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7(1), 1-14.

김용주, 임영제, 최영출, 박길성(2010). 증거기반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데이터 개발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인설, 정득, 이종석(2013).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 -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실증 연구 -. 문화정책논총, 28(1), 224-251.

맹영임, 김민, 임경희(2005).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민경훈(2013).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 고찰을 통한 역량 제고. 예술교육연구, 11(2), 13-34.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2008). 2008년 청소년인증수련활동 영역별 효과성 척도개발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정경은(2011).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요인 분석. 청소년문화포럼, 28, 166-189.

정경은, 조영미(2012). 청소년 문화예술 돌봄 프로젝트 효과 분석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43, 109-134.

정득, 김은수, 이종석(2016).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공동체의식: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7(4), 259-289.

정익중, 김서현, 임혜림(2015). 문화예술 진로교육으로 꿈을 찾은 아이들 - CJ도너스캠프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회, 52, 241-278.

정문성, 석문주, 모경환, 김해경(2011). 201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6). 2016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상상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황혜정, 김이경(2015). 한국 중등학생의 행복도 및 진로 인식분석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3(2), 21-37.